

중국의 부상: 베트남의 기회와 도전*

임홍재 (前 주베트남 대사)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진출, 베트남을 통한 동남아 진출, 북한을 통한 동해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거듭된 지배와 침략을 받아왔지만 스스로의 정체성과 독립을 유지하여 왔다. 1991년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중국과 베트남은 이해의 차이는 협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은 베트남의 자치를 존중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왔다. 안보적 차원에서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전면연계와 함께 경계전략도 동시에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베트남과 같이 한국도 중국과 비대칭 관계에 있다. 소국 베트남이 강국 중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유연한 외교전략을 우리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은 양자 대화와 교류를 통하여 대(對) 중국관계를 관리하는 한편 아세안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양자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을 통한 대 중국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대 아세안 협력을 주변 4강과의 협력수준에 못지않게 격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베트남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베트남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발전을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 제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공저)에 게재된 “베트남의 대 중국외교: 기회와 도전”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참고문헌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을 참고.

목 차

1. 서론
2. 베트남-중국 관계: 구조적 비대칭
3. 베트남의 대(對) 중국 유연한 외교: 협상을 통한 안정적인 관계 유지, 자치와 경외
4. 중국의 부상-베트남의 기회
5. 베트남-중국 관계의 아킬레스의 건: 남중국해 문제
6. 베트남의 대(對) 중국관계 관리외교
7. 향후 10년의 베트남의 대(對)중국 관계 전망
8. 베트남의 대(對) 중국 외교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1. 서론

- 중국은 G2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진출, 베트남을 통한 동남아 진출, 북한을 통한 동해 진출을 실리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동남아 진출은 중국의 꿈이었지만 1407-1427년 베트남 지배를 마지막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음. 중국은 근래에 다시 남진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1995년 아세안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2002년에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선언(DOC)’에 서명.
 - 2004년에는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립하였고, 2006년에는 중국 쿤밍에서 싱가포르까지 철도 및 육로 연결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대 메콩 소지역 협력(GMS)와 범북부만경제협력(PBG)을 두 개의 날개로 하는 ‘하나의 날개와 두 개의 축’의 구상 아래 동남아 진출 계획을 선언하고, 250억 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
- 중국의 의욕적인 동남아 진출 전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임. 베트남은 중국과 육로 및 해상 경계선을 맞대고 있고, 역사·문화·규모와 능력 면에서 비대칭관계에 있어 왔음.
 - 베트남은 거대 중국으로부터 천년의 지배와 AD 938년 독립 이후에도 수많은 침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을 유지해왔음.
 -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지배나 영향력을 거부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매료로 느껴 중국문화를 수용하는 유연한 외교를 전개함.
 - 베트남은 프랑스와 독립전쟁을 하고, 미국과 통일전쟁을 하던 1950년~1975년까지는 중국과 순치(唇齒)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나, 1979년 중국과 국경분쟁 후 12년간은 중국과 흑독한 적대시기를 경험함.
- 베트남은 1991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후 유연한 외교를 전개하여, 육지구경선 획정, 톤킨만 해양경계선 획정, 국경무역, 중국 남서부의 대(對) 아세안 진출 연결, 개방과 개혁에서 중국의 경험 학습 등 중국과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누리고 있음.

- 남중국해 분쟁의 도전에서처럼 베트남은 주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조치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계하고 있음.
 - 1979년 중국으로부터 위협 시 소련과 연합하였던 베트남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에 직면하자 과거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군사대화를 시작, 미국이 주도하는 APEC 내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선언 등 대(對) 미국 접근을 한층 강화함. 이는 베트남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외교술로 분석됨.
- 약소 베트남은 거대 중국과 과거 수많은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외교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 왔고, 1991년 국교정상화 후에도 협상을 통해 양국관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양자 및 다자 접근을 통해 중국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도 견제하고 있음.
 - 이는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책과 전략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약소국 베트남의 외교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과 한국은 지정학적,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에서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음. 이 유사성은 거의 독특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분석됨. 약소국 베트남의 거대 중국 관리외교는 비대칭관계의 일반화 연구 대상이기도 하며, 많은 점에서 베트남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도 주고 있음.

2. 베트남-중국 관계: 구조적 비대칭

- 베트남은 여러 면에서 중국과 비대칭 관계에 있었음. 엄청난 차이의 비대칭관계 중국에 대해 베트남은 때로는 조공관계를 맺으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했지만, 중국이 영토야욕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침략해오면 단호히 대응하여 물리쳤음.
 - 베트남은 BC 111년부터 AD 938년 독립민족국가를 설립할 때까지 1000년에 걸쳐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 기간 중 40년 쯤 자매 저항, 248년 짜에우 끼에우의 반란, 263년 르우호영의 반란, 541년 리비의 반란, 545년 반쑤언 침공 시 저항, 722년 마이투로안의 반란, 782년 풍흥의 반란이 있었음.
 - 938년 독립한 후에도 981년에 송나라의 베트남 침공이 있었으며, 원나라는 1257년, 1284년(50만 대군), 1287년(30만 대군) 등 세 차례에 걸쳐 베트남을 침략했으나 베트남이 이를 물리쳤음. 베트남은 1407

중국과의 수많은 대립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외교력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와...

**베트남은 중국과
구조적으로 비대칭적
관계에 있으며, 중국을
정치적으로는
거부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수용함**

년부터 1427년까지 잠시 명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나 레리어가 이를 물리치고 레(黎)왕국을 세움.

- 근세에 들어 1788년 청나라가 20만 대군으로 베트남을 침공했으나 팡쑹 황제가 청군을 물리침.
- 현대에 들어서도 중국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베트남 정부의 베트남 내 중국인 박대 등을 이유로 베트남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1979년 40만으로 추산되는 대군으로 베트남을 침공했으나 많은 희생자를 내고 철군함.

-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거부의 입장을 취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매료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 베트남의 대(對) 중국 관계에서 이를 ‘거부와 매료(repulsion and attraction)’로 표현되고 있음.
 - 중국과 베트남 간 문화적 유사성은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임. 중국은 문화와 정치의 모델로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였음. 과거 베트남 왕국들은 중국 왕국을 본떴고,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유교는 거의 2천년 동안 베트남인 의식을 지배해왔음.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적 제도와 문화에서 유사한 전통을 공유하고 있음.
- 베트남은 규모와 능력에서도 중국과 차이가 큼. 베트남은 인구 면에서 중국의 1/15, 영토 면에서는 중국의 1/33, GDP 규모에서는 중국의 1/30임.
 -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비대칭관계는 최근 중국의 국제화와 경제 성장으로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 베트남은 규모 면에서 중국과 경쟁은 불가능함. 거대 중국 곁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기회에 항상 경계해왔음.
- 중국과 베트남 관계에서 상수(常數)는 중국이 항상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 베트남에게 부담이 되는 파트너라는 점임. 중국과 베트남이 적대관계에 있든 우호관계에 있든 두 나라는 동등자 관계는 아니었고 항상 비대칭 관계였음. 이 비대칭관계는 양국민의 서로에 대한 인식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음.
 - 약소 베트남은 거대 중국에게 취약하고, 따라서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인식하면 민감하게 반응함. 특히 베트남은 자신의 주권을 공격하는 중국 측 움직임에는 과민을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이처럼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뿌리 깊은 우려와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작은 나라 베트남에 대해 두려울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관심이 적음. 그러나 1979년 국경분쟁 시 베트남이 소련과 연합했을 때처럼 중국은 베트남이 강대국과 연합하는 경우에는 경계함.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시각은 지정학적 및 전략적 관점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
-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 이런 인식의 차이는 1979년 형제의 전쟁을 가져오기도 했음.

3. 베트남의 대(對) 중국 유연한 외교: 협상을 통한 안정적 관계 유지, 자치와 경외

- 두 나라 간 비대칭관계에 내재한 오해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관계는 1991년 국교정상화 후 1999년까지 차가운 평화(cold peace)에서 돈독한 신뢰 관계(thick and confident ties)로 발전함.
- 이런 관계 진전은 상호 간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의 차이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은 베트남의 자치를 존중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경외를 표하는데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베트남과 중국은 1991년 수교 이래 2010년까지 100개의 국가 차원의 협정을 체결, 양국관계의 틀을 구축하고 통킹만 문제, 남중국해 두 개의 군도 문제, 大 메콩 소지역 협력 문제 등 현안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도모함.
 - 이 과정에서 베트남은 양자 및 아세안 등 다자 차원에서 중국과 전면적 연계를 통해 베트남의 독립 및 영토 보전 등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경제, 문화 및 관광 등 인적 교류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중국의 정치 및 경제의 부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분석됨.

비대칭관계에 내재한 오해와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의 관계는 돈독한 신뢰관계로 발전함

가. 정치관계

- 중국과 베트남 간 관계에서 1999년과 2000년은 매우 중요함.
 - 1999년 양국은 ‘장기안정, 미래대비, 선린우호, 전면협력(long-standing stability, facing the future, neighborliness and friendship, all-round cooperation)’ 등 미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16개 단어로 구성된 원칙을 천명함.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거듭 격상되고
있으며 양국 간
신뢰구축에도 큰
성과가 있어...**

- 2000년 12월 베트남과 중국은 ‘good neighbours, good friends, good comrades and good partners’ 등 네 개의 우호정신(four good spirits)을 선언하고 두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함. 그중 하나는 ‘통킹만의 수역, 배타적 경제지역, 대륙붕 경제에 관한 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통킹만에서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임.
- 통킹만 문제는 1994년 실무접촉을 시작한 이래 17회의 회합을 가진 후 타결되었음. 양국은 두 개의 협정 서명 이외에도 ‘신세기 포괄적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 선언에서 밝힌 협력에 관한 중장기의 틀을 통해 양국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해 ‘경제무역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2006년 11월 베트남과 중국 양국은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2004년도에 베트남이 중국 동남부와 베트남 간 개발과 교류의 틀로 제의한 ‘두 개의 회랑과 하나의 경제권(Two Corridors and One Circle)’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함.
- 2008년에 중국과 베트남 간 관계가 다시 한 번 격상됨. 또 양국 간 신뢰구축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었음.
 - 두 나라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양국 지도자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함.
 - 12월 31일 두 나라는 1,350km에 이르는 육지국경경계선 획정에 합의함. 양국은 국경에 2000여 개의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힘.
 - 육지경계선 획정은 2000년 12월 체결된 통킹만 해상경계획정과 함께 양국이 대화를 통해 최대 현안을 해결한 신뢰구축의 사례로 받아들여짐.

나. 경제 교류

- 중국과 베트남 간 무역규모는 1991년 양국 간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이래 꾸준히 증대되어 왔음. 1991년 수교 당시에 3천만 불 규모의 교역규모가 2010년 말에는 272억 불에 이룸.
- 양국 경제 관계에서도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비대칭의 경제의존 현상이 초래됨. 즉 중국은 베트남에게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중국-베트남 무역은 베트남의 전체 무역의 12%를 차지하나, 중국에게는 총 무역의 1% 이내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05년~2010년 간 대(對) 중국 무역에서 511억 불의 적자를 시현.
 - 중국에 유리한 무역 불균형은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의 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중국은 아직은 이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에 두 개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그 하나는 중국은 베트남을 중국의 ‘해외진출 전략(out-going strategy)’의 시험장소 차원에서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국경 무역을 통해 중국의 남부 지역인 윈난 성과 광시 성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임.
-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문화적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베트남의 경제 및 산업적 후진성은 향후 중국이 베트남에게 무역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대(對) 베트남 무역 흑자는 구조적인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중국에게 석유, 석탄, 고무, 철광, 농산물, 해산물 등 1차 상품을 수출하는데, 중국은 베트남에 철강, 기계, 장비, 시멘트, 비료, 농약, 의류 원자재, 구조물, 석유 제품, 산업생산 시설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산업능력과 금융능력 면에서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이런 무역 구조가 굳어지면 베트남은 중국에 1차 상품 수출국으로 전락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음.
- 그럴 경우 베트남의 2020년 공업화·현대화 노력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2009년에 겨우 일인당 국민소득 1,000불을 넘긴 베트남은 중소득국가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음. 이것이 베트남의 대(對) 중국 경제 관계에서 도사리고 있는 ‘두 개의 함정(double trap)’임.
- 베트남-중국 국경무역은 두 나라 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중국은 베트남과 국경무역을 통해 베트남이 중국의 윈난 성과 광시 성의 대(對) 동남아 무역 및 투자 진출의 관문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베트남도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얻고자 이를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삼아왔음. 국경무역은 국경지대의 일부 인

**양국 경제관계에서
있어서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비대칭적
경제의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베트남의 저임금,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아직
낮은 수준임**

접성의 GDP 성장,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세수 증대, 중국과 우호관계 증진 등 효과를 가져 오며, 1991년 중국과 외교관계 정상화 후 양국 간 국경무역 증진을 중요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삼아왔음.

- 베트남은 2020년까지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지역에 30개의 국경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해서 430억 불 규모의 무역을 추진하겠다는 ‘국경무역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과는 아래 3개의 경제협력지대를 이미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음. 이 경제협력지대는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회랑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Hekou-Laocai 경제협력지대, 각 측 5km² (쿤밍-하노이 회랑)
 - Pingxiang-Dongdang 경제협력 지대, 각 측 8.5km² (난닝-하노이 회랑)
 - Dongxing-Moncai 경제협력 지대, 5.8km², 4km² (하이퐁-꽝닌 회랑)

다. 대(對) 베트남 투자

- 2010년 7월 현재 중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는 승인기준 누적 749건에 31억 9천만 불 규모의 수준으로 주로 공업과 광산에 투자하고 있음.
 - 베트남에 투자하는 92개 국가 중 14위이고, 베트남 전체 FDI 규모의 1%, 외국인투자업체가 고용한 전체 베트남인 근로자의 1%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는 중공업(철, 강철, 비료, 광산, 열대목재), 에너지(화력, 수력 등), 인프라(철도, 통신 등), 건설, 농업, 서비스 등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으로는 라오카이 등 베트남과의 국경지대, 인프라가 발전한 하이퐁, 호찌민에 집중되고 있음.
- 베트남의 저임금,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대(對) 동남아 진출의 관문 등 중국이 갖는 장점과 잠재력에 비해 중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는 아직 낮은 수준임.
 - 베트남 측은 중국의 대(對) 베트남 투자가 자기들이 필요한 광물개발에 집중하고, 중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베트남이 원하는 교육, 보건, 고용 및 베트남이 우선시하는 인프라 개발 등에는 미흡하여 베트남의 빈곤 감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4. 중국의 부상 - 베트남의 기회

가. 베트남 개방·개혁에서 중국 학습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Doi Moi, 刷新) 채택 이후 개혁·개방의 과정에서 이념의 동지인 중국을 학습대상으로 삼았음.
 - 공산주의 이념 채택과 함께 경제 개혁에서도 중국이 걸은 길을 그대로 답습.
 - 베트남은 개혁·개방에서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정치개혁보다는 경제개혁을 먼저 추진했고, 농업분야 개혁을 통해 식량부족을 극복했음.
- 베트남이 중국과 사회주의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 중국 답습은 계속되었으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WTO 가입, ASEAN 가입 등 국제화 및 지역화를 통해 세계경제에 통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발전 모델도 답습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인들의 또 다른 적응 사례라 하겠음.

나. 중국 남부와 아세안 간 교량역할

- 중국은 화평굴기(和平崛起) 외교정책으로 본격적인 대외진출을 추진함. 특히 동남아를 우선지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2006년 대(對) 아세안 진출을 실현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중국 남서부와 싱가포르까지 육로 및 철도로 연결하는 남북 축을 구축하고, 범북부만경제협력과 대 메콩강 소지역협력을 병행하는 소위 ‘하나의 축과 두 개의 날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250억 불을 제공.
- 베트남도 2004년 ‘두 개의 회랑과 하나의 경제권(Two Corridors and One Circle)’을 제의 했는데, 이는 베트남과 중국 동남부와 베트남 10개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을 염두에 둔 제의였음.
- 중국은 2006년 중국 남부 및 베트남 북부 지역의 협력을 넘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까지 포함하는 중국과 아세안 해상연결을 통한 협력을 염두에 둔 PBG를 제의하였음. 이는 베트남의 ‘두 개의 회랑과 하나의 경제권’을 넘어서는 제의임.

베트남은 경제개혁에 있어서 중국을 모방하였지만, 국제화나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발전모델도 따르고 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남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중국 남부와 아세안 간
교량의 역할을 수행함**

- 베트남의 중국 남부와 아세안 간 연결
 - Kunming-Laocai-Hanoi-Haiphong 회랑, 8만 평방킬로미터, 천 9백만 명 인구
 - Nanning-Langson-Hanoi-Haiphong-Quangninh 회랑, 6만 평방킬로미터, 2천만 명 인구
- 중국 내 구간은 이미 건설되었고, 베트남 내 구간은 2013년까지는 완성될 것으로 보임. 하노이-라오카이 구간 244km 4차선 도로는 2008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하노이-랑손 120km 4차선 도로도 2008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노이-하이퐁 구간 106km 6차선 도로는 2008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임. 하이퐁-몽카이 구간 200km는 기존 노선을 개선하는 사업임.
- PBG 실현에서 중국 측으로는 윈난 성과 광시 성이 중국의 대(對) 아세안 개방과 협력의 중심이라면 아세안의 대(對) 중국 개방과 협력의 교두보는 중국과 육로 및 해상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음.
 - 베트남의 PBG 참여와 협력은 중국이 제의한 PBG 성공에 긴요한 요소로 보임.
 - 베트남도 ‘두 개의 회랑과 하나의 경제권’은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 발전의 핵심으로 베트남-중국 간 국경지대 무역과 통과무역을 활성화시켜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GMS 촉진, 중국-아세안 경제통합, 중국 서부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 2015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역협정(ACFTA) 발효

- ACFTA는 이미 2010년도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대해서는 발효되었고, 소위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에게는 2015년 발효될 예정임.
- AC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의 대(對) 중국 수출은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경무역이 한층 활발하게 되어 베트남의 북부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돕고 나아가 중국과 국경에 설립된 국경경제협력지대의 역할도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국경경제협력지대는 중국과 완충지대로 역할도 하여 베트남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대(對) 중국 무역에는 도전도 있음.
 - 첫째, 베트남 제조품목과 중국의 제조품목과의 경쟁임. 베트남에 이미 철강제품, 펄프 등 중국 제품이 몰려오고 있으며, AC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되면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 질 것이며 베트남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됨.
 - 둘째, 베트남의 대(對) 중국 경제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임. 이미 베트남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커다란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 되면 베트남의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런 경제의존도 심화는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음.

- 나아가 베트남은 대(對) 중국 무역에서 1차 상품 수출국으로서의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어 보임.
 - 중국은 제조품목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베트남은 1차 상품을 중국에 수출함(대(對) 중국 총 수출액의 60%가 원료).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천연자원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베트남의 천연자원의 대(對) 중국 수출도 증대될 것임.
 - 이런 교역 구조가 지속되면 베트남은 중국에 1차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위치가 굳어져 자본과 생산재원을 천연자원 기반 산업에 돌릴 것이며, 베트남은 1차 상품 수출국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음. 이렇게 되면 베트남은 탈공업화 리스크(de-industrialization risk)에 직면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즉 이런 교역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베트남은 그의 2020년까지 산업화·현대화 노력이 저해 받을 우려도 있음.

라. 중국진출 다국적 기업의 'China + One Strategy' 와 베트남

-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자도입에 있어 자국 산업 고도화와 산업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는 외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나아가 외자기업이 중국에 기술이전과 R&D 투자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세무조사, 노사관계 조사 등 외자기업 관리도 대폭 강화하고 있음.
 - 여기에 환경보호 조건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고 중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도 올라서 중국이 과거 외자기업에게 주었던 조세 우위, 인건비 우위의 장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중국제품의 미국시장 쿼터도 종료되고 있음.

*ACFTA가 발효되면
베트남의 제조업이
위협받고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생산비 절감,
위험분산, 생산기지
확장 등의 이유로
중국 아닌 대안국을
찾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베트남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함**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중국의 이런 간간해진 조치에 대해 중국투자 외자기업들은 생산비절감, 위험 분산, 중국 의존 탈피, 생산기지 확장 또는 이전의 전략하에서 대안국을 찾고 있는데, 베트남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베트남은 우선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해 있고, 이제 철도 및 도로 연결이 한결 용이해졌으며, 나아가 중국과 문화적으로 유사하여 중국 진출 외자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이에 더해 베트남은 정치 및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노동자들이 근면하고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중국의 절반 수준임. 베트남은 노동연령 인구가 전체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황금인구구조 (golden population structure)를 가지고 있음. 베트남의 인구는 2025년에 1억 2천 5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즉 베트남은 양질의 노동력을 앞으로 상당 기간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임.
 - 여기에 베트남은 국제규모는 아니지만 석유, 가스, 보크사이트 등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쌀(세계 2위의 생산국), 커피(세계 2위의 생산국) 등 농산물 자원도 풍부함.
- 베트남 경제의 위기, 세계 경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외자기업 관리 강화와 베트남의 유리한 투자여건에 힘입어서 2008년과 2009년 854억 불(승인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베트남에 몰려왔음.
 - 2010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베트남 새 지도부가 과감한 개방·개혁 조치를 취하면 외국인 투자는 다시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임.

5. 베트남-중국 관계의 아킬레스의 건: 남중국해 문제

- 남중국해는 엄청난 양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의 보고이며(스프레틀리 군도에만 177억 톤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국제해상운송의 1/3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해상 운송로로 전략적 중요성을 띠고 있는 지역임.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무역과 석유 운송을 해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남중국해 군도를 두고 여러 나라 간 분쟁이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 간 이해 대립이 가장 심각함.

- 베트남과 중국은 국교정상화 후 양국 관계 강화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대립함.
- 베트남과 중국 간 남중국해에 대한 양자회담은 진전이 없는 상태임.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 모두 협상의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은 파라셀 군도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항으로 토의의 대상이 아니며, 스프래틀리 군도만 협상의 대상이라는 입장임.

가. 파라셀 군도(Parcel Archipelago, 베트남은 호앙사 군도로, 중국은 시사 군도(西沙群島)로 부름)

- 이 도서는 구 월남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1974년 중국이 무력으로 월남군을 몰아낸 후 지금까지 지배해 오고 있음. 베트남은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베트남의 도서이므로 이 도서군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Archipelago, 베트남은 쯔엉사 군도로, 중국은 남사 군도(南沙群島)로 부름)

- 스프래틀리 군도에는 섬의 형태를 갖춘 섬이 모두 48개임. 이중 베트남이 24개,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7개, 말레이시아가 6개, 대만이 1개를 점유하고 있음. 중국은 1988년 일부 섬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지배하고 있음.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베트남과 중국 간 협상에는 전혀 진전이 없는 가운데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OC)’에 서명, 남중국해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 DOC는 중국과 아세안 간 7년간 협상 후 채택된 문서로 남중국해 문제 관련 당사국 간 정식 행동강령이 채택될 때까지 당사국 간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신뢰 구축, 항해의 자유 존중,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자제력 발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004년 말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선언 이행 공동실무그룹을 구성해서 논의해왔으나, 진전이 없다가 지난 5월 남중국해를 두고 베트남과 중국 간,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 후 7월 발리에서 개최된 ARF 회의 계기로 ‘남중국해 DOC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추후 ‘행동강령(COC)’으로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임.

**남중국해 군도를 두고
여러 나라 간의 분쟁이
있지만, 베트남과
중국의 이해 대립이
가장 심각함**

**베트남과 중국 간에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거의 해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 베트남과 중국 간 남중국해 관련 주요 분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2003년 5월 베트남은 국내 입법을 통해 양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규정.
 - 2004년 베트남의 국제석유회사들과 남중국해에서 석유 및 가스 개발 추진과 중국의 반대.
 - 2007년 11월 중국전국인민대회(NPC)의 하이난도 산샤 시(San Sha City) 설립 및 이 시에 남중국해의 3개 군도(Paracel, Spratly, Zhongsa)의 행정책임 위임 결정.
 - 2008년 중국이 하이난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상업용 위성사진이 공개됨. 동 인공위성 사진은 전함과 한 척의 핵 잠수함 정박하고 있음도 보여줌.
 - 2009년 중국은 양 군도에 선박 및 항공편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2009년 1년 동안 중국은 파라셀 군도 근처에서 조업 중이거나 폭풍을 피해 파라셀 군도로 들어간 베트남 어선 33척, 어부 433명을 억류 또는 나포하고 일부의 경우 벌금형을 가한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중국은 5월~7월간 북위 12도 이북에서 조업 금지를 선언하고 중국 수산청 감시대 파견.
 - 2009년 5월 남중국해에서 200마일 넘어서 자국 대륙붕 경계설정에 관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공동 및 베트남 단독 보고서가 유엔대륙붕경계위원회에 제출됨. 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의 '9개의 점선 지도 [일명 U자형 지도(U-line map)]'를 제시. 아울러 중국은 '남중국해 군도 및 인접수역에 대해 논박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며, 연관수역은 물론 심해저와 하층토에 대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함.
 - 2010년 3월 중국은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토보전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이익(core interest)'이라고 언급함. 2010년 7월 하노이 개최 ARF 회의 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아시아의 공동 해양 공동유산에 자유로운 접근, 국제법 존중에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및 이 수역에서 합법적 활동을 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압력을 반대하며, 남중국해문제가 DOC 이행 등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은 클린턴 장관의 발언이 '실제로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박 및 남중국해의 국제화에 반대한다고 언급함.
 - 2010년 8월 13일 베트남-미국 수교 15주년 기념차 미국의 조지 워싱턴 핵 항공모함이 베트남 중부 다낭을 방문하고 베트남-미국 국

방차관 회담도 개최됨. 2010년 10월 하노이 개최 아세안+8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과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 남중국해에서 미국 또는 여타국가의 정당한 경제 행위를 위협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언급 및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 관습법과 유엔해양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촉구함.

- 2011년 1월 중국은 Map World 온라인에 ‘9개의 점선 남중국해 지도’를 게재
- 2011년 5월 남중국해 근해에서 중국 순시선과 베트남 석유탐사 선박과 충돌. 베트남 5월 총선에서 스프래틀리 군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함.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선언함.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RF 회의에서 남중국해 분쟁억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남중국해 당사국 선언’의 구체적 이행의 한 조치로 ‘당사국 행동선언’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함.

○ 2011년 베트남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은 일시적 감정대결일 수도 있지만, 남중국해 군도의 주권을 두고 두 나라가 오랜 기간 대립해온 점을 보면 이번 분쟁은 두 나라 모두 계산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평화유지, DOC 준수 등 국제법 준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해저수역과 EEZ를 이용할 권리 보유, 일부는 다자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일부는 베트남-중국 간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 중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그리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6. 베트남의 대(對) 중국관계 관리외교

○ 1991년 국교정상화 후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화, 전면연계와 함께 경제전략도 동시에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확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화 전략을 살펴보면, 2000년 중국과 체결한 중장기 협력 기본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다방면에서 중국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은 양국의 당 서기장 간 및 국가 주석 간 고위급 정기 회동에서 합의한 양해를 통해 양국관계를 관리하고 이를 문서화해서 남기고 있음. 16어휘의 지침, 4개 우호정신, 부총리급 조정위원회 설립,

*2011년 베트남과
중국 간 남중국해
분쟁은 일시적인
감정대결일 수도 있지만
계산된 행동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어...*

**국교정상화 이후
베트남은 중국에게
대화, 전면연계와 함께
경계전략도 동시에
병행하는 유연한
외교를 해와...**

- 2008년 당시기장 중국 방문 계기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하라인 구축이 그 예.
-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여러 개의 이슈별로 분리하고, 이슈별로 전문가, 정부 관리 및 장관급의 공동실무 그룹을 구성해서 이를 처리해 나가고 있음. 이런 접근을 통해 두 나라 간 역사적 현안이었던 육지경계획정 조약, 톡킹만 해상경계획정 조약을 타결.
 - 전면연결을 보면, 베트남은 양자 대화 전략과 함께 다자외교를 통해 대(對) 중국 관계를 관리하고 있음.
 - 베트남은 ASEAN회원국으로서 ASEAN+3회원국인 중국과 ASEAN-중국 공동협력위원회, ASEAN-중국 고위급 회의, ASEAN-중국 정치안보 협의회, 남중국해에 관한 ASEAN-중국 공동 실무 그룹회의 등에 함께 참여.
 - 2010년 1월 발효된 CAFTA는 베트남에게는 2015년 발효될 예정인데 이 FTA는 효과적인 중국 관리 장치로 기대되고 있음.
 - ASEAN ARF를 통해서도 중국관계가 관리되고 있음.
 - 베트남이 회원국인 GMS의 경우 비록 중국 지방정부만 참여하고 있지만 GMS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 간 육지도로 연결, 국경무역 등 중국관계가 관리되고 있음.
 - MRC의 경우 베트남이 회원국이고 중국은 회원국 아니지만 중국이 MRC의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 베트남의 대(對) 중국 관리의 또 다른 창구가 될 수 있음.
 - 미국 핵 전환의 베트남 방문, 베트남-미국 간 국방차관 회의 등 미국과 군사협력도 추진하여 대(對) 중국 안보 균형도 도모함.
 -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시기에 과거의 적 미국과 국방협력을 논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공세적 압력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보임. 이는 1979년 베트남이 중국과 전쟁 시 소련을 끌어들이 중국을 견제한 역사의 사실을 상기시킴. 또 한 번의 베트남의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전략으로 보임.
 - 베트남은 938년 독립왕조를 세운 후 중국과의 비대칭관계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음. 이는 약소국인 베트남이 자치를 누리면서도 강국 중국에 대해 경외관계를 유지하는 유연한 외교능력에 기인한다고 생각됨.
 - 강대국 중국은 베트남이 제3의 강대국과 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베트남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베트남정책이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줄지 무관심할 정도이지만, 약소국 베트남은 전쟁이나 평화냐의 결정권을 가진 중국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베트남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베트남 특유의 외교술을 발휘해야했음. 국제관계에서 비대칭관계가 무수히 많지만 베트남-중국 간 비대칭관계가 비대칭관계의 일반 이론 연구에 좋은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7. 향후 10년의 베트남의 대(對)중국 관계 전망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하여 개혁과 개방의 기반을 마련한 후 2001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였고, 2001년 이후 연 평균 7%이상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음.
- 베트남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정치·사회적 안정, 풍부한 자원, 근면하고 재능 있는 국민, 황금의 인구 구조 등 내적으로 성장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WTO 가입과 CAFTA 체결 등 대외여건도 좋은 편이어서 고도성장을 계속해 갈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2020년까지 산업화·현대화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2011년 새로 구성되는 베트남 지도부는 2015년까지 7~8%의 고도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음. 이에 따라 기간산업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런 잠재력 때문인지 베트남 경제와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던 2008년과 2009년 두 해에 854억 불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베트남에 몰려왔음. 국제투자자들은 베트남이 중국처럼 개발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 또는 ‘인도차이나의 떠오르는 용’, ‘중장기 국제 무역과 투자의 자석’ 등으로 언급하고 있음.
 - 프랑스의 정치·경제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베트남의 정치·금융·교육 분야의 개혁, 인프라 구축, 부패척결 등 몇 개의 단서를 잘 이행하면 베트남이 2025년에 인구 1억 2천 5백만 명의 인구 대국으로 아시아의 3위 경제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도 베트남이 “차세대 호랑이 경제 강국”그룹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역사와 문화, 강대국을 물리친 강인한 정신, 유연한 외교, 지도층의 의지를 보면 자크 아탈리의 예측대로 아시아의 주요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유구한 역사와 문화,
강인한 정신, 유연한
외교, 지도층의 의지
등에 힘입어 베트남은
아시아의 주요국가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트남이 주요국가로 부상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비대칭적 관계가 불가피함

- 베트남이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여 주요 국가로 부상한다 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비대칭관계는 계속될 것임.
 - 이 비대칭관계는 1950년~1975년 기간의 순치(唇齒)의 동맹관계는 아니겠지만, 두 나라는 이념의 동지국가로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베트남의 중국의 개방·개혁 학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과 국경 무역이 증대하고, 중국과 항공·철도·도로·해운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중국의 아세안 경제통합 노력에서 베트남의 협력이 증대하면서 이 비대칭관계는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임.
 - 남중국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 나라 간 긴장과 대립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베트남이 1979년처럼 다른 강대국(미국)과 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약소국 베트남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지만, 1979년 베트남의 소련과 연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강대국과 연합할 때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두 나라는 비대칭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익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은 베트남의 자치를 인정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하면서 이해대립을 조정해 갈 것으로 보임. 중국은 베트남을 통제할 수 없으며, 베트남은 1979년부터 12년간 경험했듯이 중국에 대한 경외심을 잃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임.

8. 베트남의 대(對) 중국 외교와 우리에게 주는 함의

가. 베트남의 거대 중국과 비대칭 관계의 안정적 관리

- 거대 중국과 약소국 베트남은 역사, 문화, 능력 및 규모 면에서 비대칭관계에 있으며, 중국은 베트남에게 부담이 되는 파트너임. ‘베트남은 항상 홍수와 같이 살고 있다’는 베트남 속담이 이를 잘 표현하고 있음. 중국과 육지·해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은 이런 강국 중국에 대해 1,000년의 지배를 받고 938년 민족독립국가를 건설한 후에도 이래 여러 차례 중국의 침략과 잠시 지배기도 있었으나, 베트남은 국가 독립과 독자적 정체성을 잘 유지해왔음.
- 중국은 베트남의 자치를 인정하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 때로는 조

공 관계 등 경외관계를 유지한 유연한 외교술의 덕분으로 생각됨. 그러나 베트남은 1979년 중국과 전쟁에서처럼 중국이 베트남의 주권을 위협할 때에는 단호히 대응하였음.

- 이런 유연한 대(對) 중국 관리외교는 1991년 국교정상화 과정과 그 후 관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
 - 두 나라 간 역사적 현안이었던 해상경계선 획정, 육지경계선 획정을 달성하고, 중국 남서부의 동남아 진출 연결, 국경무역 활성화 등을 통해 중국과 안정적 관계 유지 기반을 구축해 가는 것도 유연한 외교술임.
 - 베트남의 유연한 외교술의 핵심은 적기포착(適期捕捉) 능력임. 938년 중국으로부터 독립 할 때도,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 선언할 때도, 1975년 통일할 때도, 1985년 캄보디아로부터 철군 선언 및 1991년 중국과 국교정상화 때도 국제 정세 및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베트남을 독립시키고 통일의 기반을 닦은 호치민 주석은 ‘때를 만나면 졸(卒) 하나로도 성공한다’며, 적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적기포착은 베트남의 외교 및 군사전략의 핵심임.
- 한국과 베트남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역사 및 2,000년의 유교문화 배경에서 어느 나라 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음. 따라서 베트남의 유연한 외교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강화

- 베트남은 양자 대화와 교류를 통해 대(對) 중국관계를 관리하면서 아세안의 다자차원에서 중국을 연계하여 아세안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음. 남중국해 분쟁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그 사례임.
- 베트남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세안은 우리에게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지역기구가 될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 무역 및 투자 등에서도 1, 2위의 위치에 있는 아세안에 대해 한반도 4강국 수준으로 외교를 격상해야 할 필요성 있음.

*한국과 베트남은
지정학적 위치,
역사 및 문화 등에
있어서 남다른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의
유연한 외교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베트남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다. 한국-베트남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19년의 짧은 외교관계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및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
 - 수교 이래 정상급 교류는 20여 차례에 이르러 양국교류의 틀을 튼튼히 구축했으며, 2009년에 이르러 두 나라는 외교관계의 교류와 폭이 최상의 상태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하였음.
 -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며, 2,000여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음. 연 교역액이 100억 불을 넘어섰고,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돕는 ODA 협력에서 매년 유무상 3억 불 규모를 지원하여 2~3위의 베트남 지원국임.
 - 베트남에 10만 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 13만 여명의 베트남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매년 50만 명이 상호 방문하고 있음. 한국과 베트남은 이제 이웃 나라, 형제의 나라, 사돈의 나라로 가까워졌음.
-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베트남은 우리 두 나라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이런 점에서 베트남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공업화·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진정한 동반자로서 베트남을 돕는 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임흥재

前 베트남 대사.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외교관
훈련과정을 이수함. 주이라크 대사 대리, 주이란 대사를 거쳐 주베트남 대사
를 역임. 저서로 『세계 경제의 포럼-OECD』, 『국제회의 참가와 협상』, 『베
트남 견문록』,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공저) 등이 있음.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